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환호는 오래 머물지 않고
빛은 이내 사그라든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그분은 끝까지 머무신다

거부와 조롱 가운데
언어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나무 위에 들린 한 몸
그 침묵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대신한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사랑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끝까지 자신을 내어준다.

주님,
말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알아듣게 하소서
아멘.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3/04/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50,545
현재 참가 인원 - 104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십자가의 성 요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을 따라
맨발의 가르멜회 기초 이뤄
반대파의 비난을 수련 기회로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맛 보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얻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되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말라... 네가 있지 않은 것에 다다르려면 네가 있지 않는 데를 거쳐서 가라. 아직 다다르지 않은 것에 다다르려면 도중 아무 것에도 받을 멈추지 말라.” (십자가의 성 요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함께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한 십자가의 성 요한(Joannes a Cruce, 1542~1591)은 1568년 11월 28일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아빌라의 데레사의 도움으로 두루엘로에서 개혁된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십자가의 요한」으로 이름을 바꾸고, 가르멜회 최초 규칙으로 돌아가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맨발의 가르멜회의 기원을 이뤘다. 이후 십자가의 성 요한은 23년간의 개혁 가르멜회 생활을 통해 가르멜회 회원들에게 영성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예언자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영성적 영향을 드러냈다.

“만약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을 버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마태 16, 24)는 말씀은 곧 그의 생애의 표현이라고 할 만큼 십자가의 성 요한은 자신의 생활에서 “십자가”의 실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영성은 한마디로 사랑 자체인 하느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었다. 1542년 스페인의 아빌라 인근 폰티베로스에서 태어난 요한의 삶은 21년간의 세속생활, 5년간의 완화 가르멜에서의 생활, 그리고 개혁 가르멜회에서 살았던 시기로 구분된다.

본래 조상은 명문 귀족이었으나 가세가 몰락, 요한이 태어날 당시에는 매우 가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망, 유복자로 세상을 본 요한은 모친이 정착한 메디나에서 목수의 조수 등으로 일하다 메디나 병원에

채용돼 간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이때 병원 전속 사제가 되려는 생각으로 예수회가 경영하는 신학교로 통학했던 그는 1563년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게 됐고 살라망카 대학에서 철학 신학 공부 후 1567년 사제서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가르멜회 환경과 생활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던 요한은 고향집을 찾았다가 아빌라의 데레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일은 그에게 일련의 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가르멜 수도회 생활보다 더욱 고적하고 깊은 기도 생활이 요구되는 카르투지회로 옮길 것을 털어놓았던 그는 성요셉 수도원을 설립 개혁 작업을 시작하고 있던 데레사로부터 개혁 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 받게 된 것이다.

두루엘로에서의 새 생활은 엄격한 금욕, 극기와 고행의 생활 등 가르멜 수도회 본래의 은수적 관상적 수도 생활 실천으로 요한을 이끌었고, 한편 맨발로 마을 내 부락을 돌아다니며 사도직을 수행했다. 이런 가운데 1577년 요한은 개혁을 반대하던 완화 가르멜회 수도자들에게 납치되어 틀레도 수도원 다락방에 감금되는 사태를 맞는다. 이곳에서 9개월간 지내면서 요한은 갖은 모욕과 학대를 묵묵히 참아냈고 오히려 자신의 덕을 쌓는 계기로 삼았다. 동료들에게 배척당하고 “순명하지 않는 자”로 비난받는 고통스런 경험 속에서 그는 여러 편의 시를 탄생시켰고 이후에는 그 시를 설명하고 해설하기 위한 저서들을 남길 수 있었다. 「로망스」, 「내 그 샘을 잘 아노니」와 「영혼의 노래」 일부가 이때 쓰여진 것이다. 감옥에서 탈출한 요한은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 하엔의 엘 갈바리오, 그라나다의 로스 마르티레스 수도원의 원장직과 안달루시아 관구장직을 역임하고 가르멜회 제1평의원, 세고비아 수도원 원장직도 맡는 등 활동을 벌였다.

맨발의 가르멜회는 1579년 교회의 공식 인정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개혁을 둘러싼 가르멜회



의 분쟁이 재현되면서 요한은 반대자들에 의해 계속적인 비난 공격의 대상이 됐다. 1591년 6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멕시코로 향하던 그는 열병에 걸려 스페인에 남게 됐고, 9월 우베다 수도원으로 옮겨진 후 정신적 고통과 병세 악화로 4개월 만에 눈을 감았다. 그는 삶의 체험을 통해 하느님을 깨달았고 하느님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인간의 소명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았다. 또 이 소명에 충실히 응답하는 데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 영적인 가르침들을 펴고자 했다. 저서들을 통해서는 사랑이 인간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소명이라는 사실과 사랑이 인간 실존에 총체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 또 사랑이 인간의 실존을 하느님을 향한 점진적인 여정으로 변모시킨다는 것을 드러냈다. 특히 「어둔 밤」 등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는 인간이 하느님을 올바르게 찾고 사랑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학자들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삶과 저서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너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에서 도망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1675년 교황 그레멘스 10세에 의해 시복됐으며 1726년 교황 베네딕도 13세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다. 또 교황 비오 11세는 1926년 교회 학자로 선포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3년 스페인 언어권의 모든 시인들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했다.

공지 사항

1 Rice Bowl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을 채워서 성당에 가져오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4/26(주일)까지 기부를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대건회 음식봉사

- 일시 : 3/29 (주일)
- 메뉴 : 카레

3 Special Collection(특별 헌금)

● 일시 : 4/3(금) 예루살렘 성지 복구 및 보존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울뜨레야 월례 모임

4월 울뜨레야 월례모임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이번 모임은 평일 저녁 시간에 개최되오니, 더욱 많은 꾸르실리스타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4/8 (수) 오후 6:00
- 장소 : 101호실

5 견진 오리엔테이션

- 일시 : 4/12 (주일) 오후 1:00
- 장소 : 101호실

6 나자렛 모임

- 일시 : 4/12 (주일) 오후 1:00
 - 장소: 친교실
- 나자렛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7 창세기 Zoom 연수

- 일시 : 4/17(금) 오후 7:00 - 오후 10:00
- 4/18(토) 오전 9:00 - 오후 4:00
- 강사 : 배미향 에밀리아 수녀님
- 회비 : 창세기 과정을 마친 연수생 - \$60 (수료증 지급)
- 청강만을 원하시는 분들 - \$30
- 등록 마감 : 4/3(금)
- 신청 문의 : 이도연 제네비에브 (206-240-3248)
- 혹은 각 성경 공부 반 봉사자

8 성주간 전례 안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 3/28(토) : 오후 7:00
● 3/29(주일):오전 8:00, 10:00, 오후 5:30
 오전 10:00 교중 미사만 행렬
오전 11:30 미사 없습니다.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 4/2(목) : 저녁 8:00
(발 씻김 예식, 수난 감실 성체 조배)

성 금요일
● 4/3(금) : 십자가의 길 (오후 3:00)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00)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 4/4(토) : 저녁 8:00
(물 축복, 세례 서약 갱신)
미사 후 울뜨레야에서 간식 제공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 낮 미사
● 4/5(주일) 오전 10:00
오전 8:00, 11:30, 오후 5:30 미사 없습니다.
미사 후 부활 잔치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입당송

파스카 축제 옛새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는 소리, * “높은 데서 호산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높은 데서 호산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이사 50,4-7
<나는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화답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2독서 필리 2,6-1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마태 26,14-27.6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순 제5주일(3/22)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70명	64명	214명	141명	23명	512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10 예물준비 성가 : 513, 216 성체 성가 : 169, 170 파견 성가 : 115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원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4/30/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4/18/26)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성명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낙태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보고,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는 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태중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낙태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 가장 힘없는 생명을 해치는 ‘살인’ 행위입니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로서, 인간의 편이나 법률적 수사로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에 본 주교단은 태아와 임산부를 모두 살리고 생명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정의를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수년째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법치 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을 올바르게 개정하여 법적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형법 개정 없이는 생명 경시 풍조가 법제화되는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에 올바른 형법의 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실효성 있는 ‘숙려 기간’ 과 ‘상담 필수화’ 도입을 촉구합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올바른 정보입니다.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주간의 숙려 기간을 동반한 상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한편,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위기 임산부 지원 센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낙태 이외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의사의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병원’ 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의료인의 기본 양심에 충실하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는 병원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낙태를 하지 않는 병원’

을 제도적으로 표시하여, 의료진에게는 생명 수호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생명 살리기 문화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4. 낙태 약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규제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낙태 약물은 결코 ‘간편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임산부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러한 낙태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5.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기를 촉구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임신, 출산,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제도를 보완하여 아기의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가운데, 태중의 아기가 축복 속에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진정한 자기 결정권은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 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인식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확대, 학교와 직장 내 돌봄 시설 확충 등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년 3월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